

폭력범죄에 대한 상호행위론적 접근

-자존심의 손상과 폭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 성 식*

- I. 서 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연구모델의 구성 및 연구방법
- IV. 분석결과
- V. 결 론

I. 서 론

범죄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다. 특히 폭력범죄는 재산범죄나 기타 다른 범죄와는 달리 사람들의 신체나 생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는 점에서 보다 심각성을 띠는 범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폭력성 범죄는 증가추세에 있어 그 심각성은 더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학원폭력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의 폭력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다면 폭력성 범죄의 원인은 무엇인가? 기존의 연구에서는 특히 아노미이론 그리고 폭력하위문화이론에 근거하여 구조적 불평등 및 친폭력적인 하위문화의 존재가 폭력범죄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보아 왔다. 그리고 과연 구조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 중 어떠한 요인이 중요한가에 대한 많은 논쟁과 경험적 연구가 있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여러가지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그 중 대표적인 문제점은 그 이론적 적합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대부분의 연구가 공식통계자료를 통해 거시적인 연구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공식통계를 사용하게 될 경우 각 이론에서 제시하는 주요 원인들을 과연 적절히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우선 지적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의 연구의 경우 하위문화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한 지역과 사회에서의 흑인들의 구성율을 파악하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폭력하위문화의 적절한 지표가 될 수 있는가가 의문시된다. 폭력하위문화는 사회구성원들이 폭력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가로 보다 적절히 파악할 수 있지만 이

*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전임강사

를 공식통계상에서 연기란 매우 어렵다. 또한 공식통계자료를 통한 거시적 연구는 폭력범죄가 발생하는 보다 미시적인 역동적 과정을 파악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범죄의 원인설명에 있어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특히 폭력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이 있다. 그것은 폭력성 범죄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우연한 어떠한 이유로 즉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질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강도의 경우를 논외로 하더라도 살인이나 폭행과 같은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서로 잘 알고 지내던 면식관계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주로 범행은 그러한 사람들간에 일어나는 사소한 말다툼이나 시비에서 비롯되며 상대방에 의해 느끼게 되는 모욕감이 범행의 주요 동기가 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폭력범죄에 대한 또 다른 시각에서의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된다.

최근 범죄연구에서는 범죄인들의 특성을 발견하려는 범죄성향에 관한 연구보다는 범죄발생의 상황적 요인들을 발견하려는 데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이 입장에서는 범죄가 상황여건에 따라 즉각적으로 우연하게 발생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적 요인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해 왔다. 범죄발생의 즉각적인 요인을 모색하려는 다양한 논의들 중 특히 상호행위론적 접근은 인간 상호행위상 있게 되는 폭력범죄의 우발적 요인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본 연구는 상호행위론적 관점을 통해 폭력범죄의 원인을 모색하려는 데에 주 목적을 둔다. 그리고 폭력범죄의 원인으로 대인 갈등관계에서 흔히 있게 되는 자존심의 손상을 그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상호행위 가운데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모욕을 받고

자존심이 심히 손상되었을 경우 폭행의 가능성은 높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자존심의 손상이 폭력성 범죄로 이어지는 과정과 그 이유를 소개하고 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경험적으로 고찰해 보려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논의

1. 폭력범죄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

폭력범죄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기존의 사회학적 연구에서는 지배적인 두 이론의 입장이 존재한다. 그 하나는 아노미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하위문화이론이다. Merton(1938)의 아노미이론에 따르면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범죄율이 높다고 본다. 그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간의 괴리를 범죄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인간은 누구나 부의 축적이나 금전적인 성공을 목표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합법적인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할 때 어떠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고 본다. 그리고 합법적 수단을 갖게 되는가의 여부는 구조적 여건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는데 흔히 하층 사람들은 구조적인 이유로 그러한 수단을 갖지 못하게 되고 결국 좌절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범죄의 가능성은 높다고 주장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수준에서도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사회는 구조적 제약을 받게 되는 성원이 많음으로써 범죄율도 높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하위문화이론가들에 따르면 범죄는 구조적 요인보다는 어떠한 하위문화의 속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즉 범죄가 용인되고 별 거부감이 없이 허용되는 문화에 있게 되는 사람들은 그

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친범죄적인 하위문화가 존재하는 사회는 범죄율이 높게 되고 한 사회내에서도 그러한 문화에 접하게 되는 사람들은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하위문화의 속성은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고 하층은 친범죄적인 하위 문화를 보다 수용함으로써 해서 더욱 범죄를 하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Cohen, 1955; Miller, 1958). 그러나 Wolfgang과 Ferracuti(1967)는 특히 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폭력하위문화는 지역 별로 다르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예컨대 폭력이 용인되고 폭력하위문화가 존재하는 미국 남부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폭력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이후 학자들은 폭력범죄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구조적 불평등에 있는지 아니면 하위문화의 존재 때문에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연구하여 왔다. 이 연구들은 주로 살인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두었고 공식통계자료를 통해 사회나 지역을 분석단위로 하는 거시적 접근방법을 선택하였다. 예를 들어 Blau와 Blau(1982)는 미국내에 경제적 불평등 수준의 지역별 차이가 살인율의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후 국가간 비교연구에서도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국가일수록 살인율은 높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Hansmann and Quigley, 1982; Messner, 1982; Krahn et al., 1986). 그러나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불평등과 살인율과는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연구보고도 상당수 있다(Bailey, 1984; Messner and Tardiff, 1986; Golden and Messner, 1987).

하위문화이론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를 보면 대체로 남부지역과 기타지역간에는 살인율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보임으로써 그

입장을 지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배적이다(Loftin and Hill, 1974; Bailey, 1984; Williams, 1984; Loftin and Parker, 1985). 오히려 하위문화의 존재여부는 남부지역 여부보다는 흑인들의 폭력문화에 주목하여 어떠한 지역에 흑인의 구성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게 된다. 그러나 흑인의 구성비율이 높은 지역은 하위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빈곤이라는 문제 때문에 살인을 포함한 범죄율이 높다고 보는 견해가 보다 일반적이다(Loftin and Hill, 1974; Messner, 1983; Loftin and Parker, 1985; Sampson, 1987; Smith and Jarjoura, 1988). 하위문화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지역이나 인구구성율보다는 사회구성원들이 얼마나 친폭력적인 태도를 수용하는가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 사회간에 전쟁발생수, 사형집행제도의 수용 여부를 통해 폭력하위문화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범죄율과 연관시키고자 했던 연구도 있다(Landau and Pfefferman, 1988; Gartner, 199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폭력범죄에 대한 설명에 있어 하위문화이론이나 아노미이론은 강력한 지지를 못받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폭력범죄에 대한 또 다른 연구로서 보다 최근에는 범죄기회이론이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범죄기회이론은 생활양식이론(Hindelang et al., 1978)과 일상행위이론(Cohen and Felson, 1979)을 통칭하여 부르는 이론으로 범죄율은 구조적 혹은 문화적 요인과는 독립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일상생활의 패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특히 범죄피해조사를 통해 범죄의 발생원인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이론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이론에 따

르면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일상행위가 범죄기회와 위협에 노출될수록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론이다.

범죄기회이론은 아노미이론이나 하위문화이론과는 달리 범죄발생의 상황적 특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범죄는 구조적이고 문화적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패턴 속에서 발견되어야 한다고 본다. 범죄기회이론에 따르면 범죄는 범죄성향을 가진 사람에 의해 지속적으로 행해지기보다는 누구에게나 간헐적이고 순간적이며 우연하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고 본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패턴이 범죄기회에 자주 노출될수록 우연한 기회에 범죄발생의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따라서 집밖에서의 활동이 잦고, 여가활동으로 밤에 자주 외출을 하며, 또한 유흥지역을 자주 찾는 사람들은 그만큼 범죄기회에 자주 노출됨으로 해서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생활양식에서 뿐만 아니라 그러한 패턴을 보이는 지역과 사회도 그만큼 범죄율은 높을 것이라고 본다(Garofalo, 1987; Maxfield, 1987; Messner and Blau, 1987; Miethe et al., 1987; Smith and Jarjoura, 1988; Kennedy and Forde, 1990). 아노미이론과 하위문화이론이 폭력범죄의 설명에 있어 그 설명력이 미약하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범죄기회이론은 많은 연구에서 경험적 지지를 받고 있다. 아마도 그 이유는 특히 폭력범죄의 경우 다른 유형의 범죄와는 달리 우연한 기회에 우발적이고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노미이론과 하위문화이론에 관심을 가졌던 거시이론가들은 기존의 그들의 이론들이 경험적으로 지지를 못받게 되자 폭력범죄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그 원인은 다를 것이라는 가

설을 보다 최근에 제시하게 된다(Parker and Smith, 1979; Loftin and Parker, 1985; Williams and Flewelling, 1988; Parker, 1989). 예컨대 살인의 경우 강도와 연관된 살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간에 우연히 발생하는 살인과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전자의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주로 물질적인 이유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 친구 혹은 친분이 있는 사이로 강도의 경우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다. 강도살인의 경우는 물질적인 이유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하위문화가 존재하는 지역보다는 빈곤한 지역 혹은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더욱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친지나 아는 사람간에 있게 되는 살인은 상호작용의 갈등상황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것은 그러한 갈등과 폭력이 용인되는 지역에서 보다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하위문화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Williams와 Flewelling(1988)의 연구결과를 보면 남부지역 여부와 같은 하위문화 변인은 어떠한 유형의 살인도 설명하지 못하지만 또 다른 하위문화 변인으로 흑인구성율은 주로 가족, 친구나 아는 사람들간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살인을 잘 설명해 준다고 보아 그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연구들은 대인 갈등관계에서 있게 되는 폭력범죄의 특성에 주목하는 데에 그 의의를 갖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살인이나 그밖의 폭행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그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안면이 있고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있게 되며 그 원인도 두 사람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발생원인도 물질적인 이유에서가 아닌 보다 상황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

적한다(기존연구의 검토를 위해서는 Decker, 1993 참조). 따라서 범죄기회이론도 이러한 점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범죄기회이론내에서도 폭력범죄의 발생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동적 관계로 이해하려고 하는 연구가 있다(Jensen and Brownfield, 1986; Sampson and Lauritsen, 1990). 폭력범죄는 계획적이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일어나기 쉬우며 사소한 말다툼이나 논쟁 가운데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때 흔히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어떠한 모욕을 줌으로써 폭행을 촉진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Sommers and Baskin, 1993; Simon, 1995). 기존의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유형의 폭력범죄를 하위문화이론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Williams and Flewelling, 1988; Luckenbill and Doyle, 1989; Parker, 1989; Kennedy and Baron, 1993). 물론 이러한 범죄유형은 폭력이 용인되는 하위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발생하기도 할 것이지만 상호행위상 있게 되는 보다 직접적이고 역동적인 범죄발생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거시연구보다는 미시연구를 통해 보다 적절히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다룰 상호행위론적 접근은 폭력범죄의 발생을 설명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폭력범죄에 대한 상호행위론적 접근에서의 논의

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상호행위론적 접근은 사회학이론의 대표적 이론의 하나인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 기초한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론가들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상황 속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어떠한 구조적 요인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인간들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관심을 둔다. 또한 상징적 상호작용이론가들은 인간의 상황에 대한 정의에 주목한다. 인간은 외부 상황을 해석하고, 정의하며, 의미부여를 하는 능동적 존재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내면적 사고, 해석에 따라 행동한다고 본다. 상황에 대한 의미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의미부여와 해석에 따라 새롭게 계속적으로 창출되고 발전된다고 본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있게 되는 계속적인 상황 및 그것에 대한 능동적인 의미부여의 과정 속에 행해지게 된다고 본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 기반한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는 범죄자와 피해자간의 상호행위의 과정, 상호행위에서 있게 되는 상황에 대한 행위자들의 의미부여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폭력범죄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상호행위론적 접근에 있는 학자들에 따르면 살인이나 폭행과 같은 범죄는 범죄자와 피해자간의 역동적인 상호행위의 결과라고 본다(Hepburn, 1973; Luckenbill, 1977; Felson and Steadman, 1983). 예를 들어 Luckenbill(1977)은 살인과 같은 범죄를 상호행위의 결과라 규정짓고 어떻게 하여 두 사람간의 상호행위가 살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상호행위 가운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아, 권위 혹은 인품을 손상시키는 어떠한 모욕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가해자는 자존심의 손상을 입게 되고 피해자의 모욕과 행동을 폭력적인 어떠한 행위로 해석하게 된다고 본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모욕과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지만 피해자가 그 요청을 거부하게 될 때 두 사람간의 갈등은 증폭된다고 본다. 이때 누군가가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게 되고 사소한 폭행이 일어나게 되며 상대방이 어떠한 무기를

사용하여 신변에 위협을 주게 될 때 상황은 극에 다르게 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살인과 같은 범죄를 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상호행위론적 접근에서는 인간의 상호행위상 사소한 말다툼에서 있게 되는 다른 사람의 모욕이 폭력의 기록제가 된다고 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모욕이 즉각적인 폭력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에 의해 그것이 모욕적인 언사라 해석, 정의되어지고 특히 자아에 중대한 손상을 줄 때 폭력의 가능성은 높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론가인 Goffman (1959)에 따르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는가의 인상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동기가 있다고 본다. 즉 인간은 대부분 긍정적인 자아를 보존하려는 욕구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모욕으로 인해 인상이 위협받게 되고 자아에 손상이 오게 되면 누구나 자신의 인상을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시도를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상호행위론적 접근에 있는 범죄학자들은 폭력행위가 그러한 과정에서 있게 되는 결과라고 주장한다(Luckenbill, 1977; Athens, 1980; Felson and Steadman, 1983; Campbell, 1986; Savitz et al., 1991). 즉 상호행위 가운데 상대방의 언행으로 자아에 손상이 있게 될 때 자아를 회복시키려는 동기에서 폭력행위는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아와 범죄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는 범죄가 자아를 보존하고 자긍심을 증진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줄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최대화하려는 욕구가 있게 되는데 흔히 자긍심이 낮은 사람들이 범죄의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범죄를 통해 자긍심을 높히려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Kaplan, 1975, 1980; Kaplan

et al., 1986; Rosenberg et al., 1989). 가정이나 학교, 그밖에 일상생활에서 실패를 일삼게 되고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은 범죄를 통해 자신의 손상된 자긍심을 증진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aplan 등의 연구는 범죄가 자긍심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고 보지만 상호행위 가운데 있게 되는 역동적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자긍심과 범죄와의 관계를 다루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낮은 자긍심을 갖는 사람들은 범죄의 가능성이 높으며 범죄를 하게 되면 자긍심이 높아질 것이라 주장하지만 자긍심과 범죄와의 관계는 미약할 뿐 아니라 범죄를 하게 되면 자긍심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기도 하다(Wells and Rankin, 1983; McCarthy and Hoge, 1984).

자아증진의 욕구가 범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긍심과 범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보다는 상호행위 가운데 상대방의 모욕으로 인해 자존심이 손상될 경우 범죄의 가능성이 높게 되는지의 역동적 과정을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소한 말다툼과 모욕으로 인해 자아가 손상되면 인간은 누구나 자아를 증진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아를 회복하고 그 상황을 종결시키려는 의도에서 폭행의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수치심과 폭력행위와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Scheff and Retzinger, 1991; Felson and Tedeschi, 1993). 수치심이란 다른 사람에 비춰진 자신의 자아나 인상이 심히 손상되었을 경우 느끼는 감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인간의 상호행위 가운데 누군가에 의해 심한 수치심을 받게 되면 격분에 의해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즉 폭력사용에 있어 그 중요

한 원인은 자아의 손상에 있다고 본다.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Katz(1988)의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범죄는 우연한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하는데, 특히 폭력범죄의 경우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나 자아를 지키려는 목적에서 연유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누군가가 자신의 부모나 자신에 대해 심하게 놀리고 조롱하게 될 때 자신의 권위는 손상되게 되고 격분에 의해 폭행과 같은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게 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상호행위상 있게 되는 모욕과 자존심의 손상은 폭력범죄의 또 다른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모델의 구성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연구를 통해 과연 상호행위상 있게 되는 자존심의 손상이 폭력범죄를 설명하는 그 주요 요인이 되는지를 살펴보려는 데에 목적을 둔다. 폭력행위는 인간 상호행위상 있게 되는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파악되어야 하며, 따라서 거시수준의 연구를 통해 폭력범죄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강도와 살인, 그리고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보다는 폭행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폭행의 경우 그 대부분은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 하듯이 친분이 있는 인간 상호관계 가운데 발생한다고 본다. 그리고 범죄는 매우 사소한 우연한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하는데 사소한 시비나 말다툼 상황에서 상대방의 모욕으로 자존심이 심히 손상되게 될 때 격분에 의해 혹은 자아를 회복하고 상황을 종결시키려는 목적에서 폭행의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호행위 가운데 있게 되는 자아 또는 자존심의 손상을 폭력범죄의 그 주요 요인으로 다루고자 하며 기존의 중심적인 논의가 되었던 아노미이론,

하위문화이론, 그리고 범죄기회이론에서 중시되는 다른 변인들과 비교하여 그 상대적인 설명력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개인수준에서의 아노미이론에 대한 논의는 긴장이론가들에 의해 다뤄진다. 긴장이론가들에 따르면 구조적 불평등에서 개인이 느끼게 되는 긴장과 좌절감을 범죄의 그 주요 원인으로 본다. 흔히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 여건상 그 기회가 제약되어 구조적 긴장을 느끼게 되는 사람일수록 폭력범죄를 포함한 범죄의 가능성은 높다고 주장한다(Elliott, 1962; Farnworth and Leiber, 1989; Agnew, 1992; Burton and Cullen, 1992). 한편 개인수준에서의 하위문화이론에 대한 논의는 개인이 일상생활 가운데 폭력에 얼마만큼 접하고 학습하며 그로 인해 폭력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용인하는가에 초점을 둔다. 즉 차별접촉이론가나 사회학습이론가들에 의해 주장되듯이 친폭력적인 태도를 그 주요 요인으로 간주하게 된다(Sutherland and Cressey, 1978; Akers et al., 1979; Johnson, 1979; Matsueda, 1982). 거시연구에서는 공식통계자료를 통해 얻게 되는 하위문화의 간접적 지표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하위문화이론에 대한 정확한 검증은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개인수준에서 폭력이 용인되는 정도와 폭력범죄와의 관계를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그 영향력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수준에서의 범죄기회이론은 개인의 일상 생활양식이 범죄기회에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는가를 통해 범죄와 연관지워 설명한다(Garofalo, 1987; Miethe et al., 1987; Kennedy and Forde, 1990). 이 이론은 주로 범죄피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었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범죄피해와의 관계에 주목한다. 그러나 범죄기회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범죄피해이외에도 우연한 기회에 범죄를

〈그림 1〉

폭력범죄에 대한 연구모델



하게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흥업소에 자주 찾는다든지, 밤에 주로 집밖에서 활동하며, 친구와 자주 몰려 다니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한 우연한 기회에 그만큼 폭행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연구를 통해 개인이 느끼고 인지하는 구조적 긴장, 폭력문화에 대한 수용도, 일상생활에서의 범죄기회 그리고 인간 상호행위에서 있게 되는 모욕과 그로 인한 자존심의 손상을 폭력범죄의 그 주요 요인으로 다루고자 하며, 과연 어떠한 요인이 폭력범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델은 〈그림 1〉과 같다.

이 연구를 위해 청소년들의 폭력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이는 학원폭력을 비롯하여 청소년들의 폭력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유에서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재학중인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강북과 강남 각각 5학교씩 총 10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에서 각각 한 학급을 선정한 후 학급학생 전원에게 설문에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는 방법을 취했다. 조사는 1996년 6월 1일부터 2주간 실시되었으며 총 492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자존심의 손상이 폭행으로 이어지는가를 다루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으로 설계된 시나리오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즉 자존심의 손상을

중심으로 자기 다른 두가지 범죄상황의 시나리오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과연 자존심의 손상이 있는 시나리오상의 응답자가 폭행의 가능성이 높은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 유형의 시나리오의 내용은 “친구들끼리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됐다. 금방이라도 싸움이 시작될 판이다”로, 다른 유형은 “친구들끼리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됐다. 금방이라도 싸움이 시작될 판이다. 상대방은 나의 자존심을 있는대로 건드렸다”라는 내용으로 제시된다. 두 유형의 시나리오를 응답자에게 무작위로 배포하고 각각의 상황에서의 폭행의 가능성을 “절대로 싸울 것 같지 않다”에서 “확실히 싸울 것 같다”에 이르는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만약 두 유형에 따라 폭행의 가능성에 큰 차이를 나타낸다면 자존심의 손상이 그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긴장이론에서 제시되는 구조적 긴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나는 내 현재 여건상 내가 추구하는 목표나 일을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질문문항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토록 했다. 폭력하위문화이론에서 제시되는 폭력에 대한 수용도를 위해서는 “싸우고 폭행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라는 질문에 5점 척도를 통해 살펴 보았다. 한편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이 범죄기회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나는 친구들과 자주 몰려 다니는 편이다”, “나는 밤에

주로 집박에 많이 있는 편이다”, “내 일상생활과 내 주위를 보면 나쁜 일을 할 기회가 많은 편이다” 등의 세 문항을 사용하기로 한다(Cronbach alpha = .66).

그밖에 통제변인으로는 연령, 가족수입, 결혼가정의 여부와 같은 사회배경 변인들 이외에도 청소년 비행에 있어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부모와의 애착관계 그리고 학업성적을 포함하기로 한다.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위해서는 “나는 부모님과과의 관계에 매우 만족하는 편이다”, “나는 부모님과과의 갈등이 심하다”, “부모님은 나를 충분히 이해주시지 못하는 것 같다” 등의 세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두번째, 세번째 문항은 역으로 부호화하여 세 문항을 합산하였다(Cronbach alpha = .78). 학업성적을 위해서는 “1-5등”에서 “51등 이하” 등 열 항목에 이르는 학업성차를 통해 살펴 보았다.

IV. 분석결과

우선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조사대상자의 사회배경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령의 경우 16세에서 19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균점수는 17.47로 17세와 18세가 전체 대상자의 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사대상자의 가족수입의 평균은 4.15로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사망한 결혼가정의 청소년은 전체 대상자의 5%를 차지했다. 조사대상자는 대체로 부모와 친밀한 애착관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만족도의 경우 부정적 응답은 전체의 16%,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은 30%,

<표 1>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결과

변 인	평 균	표준편차	범 위
연 령	17.47	.73	16-19
가족수입	4.15	1.21	1- 6
결손가정	.05	.21	0- 1
부모애착	9.87	2.54	3-15
학업성적	6.43	2.46	1-10
구조긴장	2.64	1.02	1- 5
폭력수용도	2.67	.89	1- 5
일상범죄기회	8.39	2.35	3-15
자존심손상	.50	.50	0- 1
폭 행	2.87	1.18	1- 5

긍정적인 응답은 5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업성차를 물어본 학업성적의 경우 한 학급 전원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구조적 긴장의 경우 그 평균점수는 2.64로 응답자들은 대체로 현 여건상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것 같다고 응답했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전체의 48%,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은 30%, 구조적 긴장을 느끼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폭력의 수용도의 경우 폭력은 청소년 사이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4%,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은 25%,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1%로 나타나 청소년들은 주위에서 폭력을 자주 접하며 그것을 쉽게 용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의 범죄기회를 살펴보면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예를 들어 주위 일상생활에서 범죄기회가 많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37%,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은 26%,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37%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방법을 통해 측정된 자존심의 손상의 경우는 응답자에게 그 여부를 고루 배분하였기 때문에 평균점수가 0.5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상

황에서의 폭행의 가능성에 대한 평균점수는 2.87로 나타났는데, 싸우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전체의 40%, 반반이다라는 응답이 27%, 싸울 것이라는 응답도 33%로 높게 나타났다.

〈표 2〉는 폭행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다른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독립변인으로는 연령, 가족수입, 결혼가정 등의 사회배경변인과 부모와의 애착관계, 학업성적, 그리고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구조적 긴장, 폭력에 대한 수용도, 일상생활에서의 범죄기회, 그리고 상호행위상 있게 되는 자존심의 손상이 포함된다. 분석결과를 보면 연령, 가족수입, 결혼가정과 같은 사회배경변인들은 폭행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즉 사회배경적 특성과 폭력범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부모와의 애착관계나 학업성적 또한 폭행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이와 같은 변인들은 사회유대가 약할 경우 비행이나 범죄의

〈표 2〉 폭력범죄의 연구모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폭	행
	b	B
연령	-.012	-.008
가족수입	.043	.044
결혼가정	.369	.065
부모애착	-.036	-.078
학업성적	-.016	-.030
구조긴장	.038	.032
폭력수용도	.264***	.198
일상범죄기회	.058*	.116
자존심손상	.340**	.144
R ²	.100	

* = p<.05; ** = p<.01; *** = p<.001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회통제 혹은 사회유대이론가들에 의해 중요시 다뤄지고 있으나 본 결과에서 보듯이 폭력행위와는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긴장이론에서 강조하는 구조적 긴장도 폭행을 설명하는 그 주요 요인이 되지는 못했다. 기존의 연구에서 보면 거시수준에서의 구조적 불평등과 범죄율과도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특히 강도이외의 상호행위상 일어나게 되는 폭행의 경우 그 영향력은 낮다고 보았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도 그 영향력은 미약했다. 그보다 본 연구결과에서 볼 때 폭행에 있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변인으로는 폭력에 대한 수용도, 상호행위상 있게 되는 자존심의 손상,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범죄기회에의 노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보면 폭력에 대한 수용도가 폭행에 대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임으로써 하위문화이론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주위에서 폭력을 자주 접하고 그것을 쉽게 용인하는 청소년들이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비록 폭력에 대한 수용도와 비교할 때 그 영향력은 다소 낮았지만 상호행위 가운데 사소한 시비과정에서 상대방의 모욕으로 발생하게 되는 자존심의 손상도 폭행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와 자주 몰려 다니고, 밤에 자주 외출하는 등 일상생활의 패턴이 범죄기회에 자주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도 우연한 기회에 폭행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폭력의 수용도나 자존심의 손상과 비교할 때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상호행위상 있게 되는 자존심의 손상은 폭행에 있어 매우 중요

한 요인이었다. 즉 사소한 시비와 같은 폭행발생의 상황에서 자존심의 손상이 있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폭행발생의 여부는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폭력하위문화의 승인 또한 폭력범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는 하위문화이론가들의 주장대로 친폭력적인 태도의 지속적인 학습과 내면화가 폭행을 결정짓는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최근의 이론가들의 주장과 같이 폭력문화를 승인하는 사람일수록 상호행위 가운데 있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폭력이 쉽게 용인되고 허용된다는 맥락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폭력문화에 접하고 그것을 승인하는 사람일수록 상호행위의 갈등상황에서 자존심의 손상이 있게 될 때 폭력행위의 가능성은 보다 높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폭력문화를 승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각각에 있어 자존심의 손상이 있을 경우 폭행의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3>은 폭력문화를 승인하지 않는 집단의 자존심의 손상과 폭행간의 회귀분석의 결과를, <표 4>는 폭력문화를 승인하는 집단의 자존심의 손상과 폭행간의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이 분석에 있어 통제변인으로는 앞선 분석에서의 같이 사회배경변인들과 부모와의 애착관계, 그리고 학업성적을 사용하기로 한다.

<표 3>과 <표 4>의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상호행위상 사소한 시비가 있게 되고 상대방의 모욕으로 자존심의 손상이 있을 때 폭행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폭력하위문화에 접하고 그것을 승인하는 집단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폭력은 상호작용의 갈등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그것은 폭력이 용인되는 사람에게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폭력은 상호작용의 갈등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

<표 3> 폭력을 승인하지 않는 집단의 경우에 있어서의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b	B
연령	-.051	-.036
가족수입	.030	.035
결손가정	.073	.016
부모애착	-.049	-.107
학업성적	-.012	-.028
자존심손상	.206	.096
R ²	.024	

* = p<.05; ** = p<.01; *** = p<.001

<표 4> 폭력을 승인하는 집단의 경우에 있어서의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b	B
연령	.018	.011
가족수입	.073	.070
결손가정	.731	.111
부모애착	-.047	-.103
학업성적	-.029	-.057
자존심손상	.407**	.167
R ²	.062	

* = p<.05; ** = p<.01; *** = p<.001

며 특히 그것은 폭력이 용인되는 사람에게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상호행위상 있게 되는 자존심의 손상이 반드시 폭력으로 이어지는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며 폭력이 용인되는 폭력하위문화가 존재할 때 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결국 폭력하위문화이론가들의 논의도 그것을 거시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미

시적인 역동과정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V. 결 론

기존의 폭력범죄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거시수준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다른 범죄와는 달리 특히 폭력범죄는 인간 상호행위의 역동적 과정속에서 발생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미시연구를 통해 인간 상호관계속에서 있게 되는 갈등상황이 어떻게 폭력으로 발전하게 되는가에 주목했다. 특히 사소한 시비나 말다툼의 상황에서 상대방의 모욕으로 인해 자존심의 손상이 있을 경우 폭력범죄의 발생 가능성은 높다고 보았다. 이에 기존의 연구에서 중점적인 논의가 되었던 아노미이론, 하위문화이론 및 범죄기회이론에서 제시되는 다른 주요 변인들과 비교하여 자존심 손상의 폭력범죄에 대한 그 영향력을 살펴 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상호행위 가운데 자존심의 손상이 있게 될 때 폭력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폭력범죄에 대한 상호행위론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폭력문화에 자주 접하고 그것을 승인하는 사람들도 폭력범죄의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폭력하위문화이론가들의 주장 또한 입증되었다. 즉 폭력문화가 주위에 있게 되고 이것이 내면화되고 쉽게 용인될 때 폭력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력문화가 폭력범죄에 영향을 주게 되는 맥락은 미시적인 인간상호간의 갈등관계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즉 폭력문화에 접하고 폭력을 용인하는 사람에 한해서 미시적인 역동과정에서 있게 되는 자

존심의 손상이 폭력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인간 상호행위 가운데 사소한 시비로 자존심의 손상을 입는 경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있게 된다. 이러한 일로 폭행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열을 중시하여 권위주의의 문화속에 있고 체면을 중시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자존심이 강조되는 사회라고 할 때 폭행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또한 폭력이 용인이 되는 사회이다. 전쟁을 경험했고 잦은 시위와 공권력의 남용으로 우리는 주위에서 폭력을 자주 접하게 된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몸싸움, 부모나 학교선생의 체벌, 아내구타와 같은 가정폭력, 폭력물의 범람 등으로 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쉽게 접하고 또한 용인되며 정당화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폭력은 쉽게 용인되고 허용될 때 인간갈등상황에서 쉽게 폭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분위기가 우선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 연구는 미시적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이론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려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앞으로의 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자존심의 손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존심의 손상과 같은 범죄유발 요인이외에도 범죄의 상황적 통제 요인들을 고려한 연구도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자존심의 손상이 있을 경우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게 될 때 폭력으로 발전하지 않게 되는지의 통제 요인들을 발견하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폭력문제를 비롯하여 폭력범죄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폭력범죄의 원인을 모색하려는 일 연구에 지

나지 않는다. 폭력범죄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대

한 효과적인 대책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보다 활발한 연구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 47-87.
- Akers, R.L., M.D. Krohn, L. Lanza-Kaduce and M. Radosevich. 1979. "Social Learning and Deviant Behavio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3 : 114-53.
- Athens, L. 1980. *Violent Criminal Acts and Actors : A Symbolic Interactionist Study*. Boston and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 Bailey, W.C. 1984. "Poverty, Inequality and City Homicide Rates." *Criminology* 22 : 531-50.
- Blau, J.R. and P.M. Blau. 1982. "Metropolitan Structure and Violent Crim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 114-28.
- Burton, V. and F. Cullen. 1992. "The Empirical Status of Strain Theory." *Crime and Justice* 15 : 1-30.
- Campbell, A. 1986. "The Streets and Violence". In *Violent Transaction*, edited by A. Campbell and J. Gibbs. New York : Basil Blackwell.
- Cohen, A.K. 1955. *Delinquent Boys*. New York : Free Press.
- Cohen, L.E. and M. Felson.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 588-608.
- Decker, S.H. 1993. "Exploring Victim-Offender Relationships in Homicide." *Justice Quarterly* 10 : 585-612.
- Elliott, D.S. 1962. "Delinquency and Perceived Opportunity." *Sociological Inquiry* 32 : 216-27.
- Farnworth, M. and M.J. Leiber. 1989. "Strain Theory Revisite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 263-74.
- Felson, R.B. and H.J. Steadman. 1983. "Situational Factors in Disputes leading to Criminal Violence." *Criminology* 21 : 59-74.
- Felson, R.B. and J.T. Tedeschi. 1993. *Aggression and Violence : Social Interactionist Perspectives*. Washington DC : ASA.
- Garofalo, J. 1987. "Reassessing the Lifestyle Model of Criminal Victimization," In *Positive Criminology*, edited by M. Gottfredson and T. Hirschi. Beverly Hills, Calif. : Sage.
- Gartner, R. 1990. "The Victims of Homicide : A Temporal and Cross-national Comparis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 : 92-106.
-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Carden City, NY : Doubleday and Co.

- Golden, R.M. and S.F. Messner. 1987. "Dimensions of Racial Inequality and Rates of Violent Crime." *Criminology* 25 : 525-42.
- Hansmann, H.B. and J.M. Quigley. 1982. "Population Heterogeneity and the Sociogenesis of Homicide." *Social Forces* 61 : 206-24.
- Hepburn, J.R. 1973. "Violent Behavior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ociological Quarterly* 14 : 419-29.
- Hindelang, M.S., M. Gottfredson and J. Garofalo. 1978. *Victims of Personal Crime*. Cambridge, Mass : Ballinger.
- Jensen, G. and D. Brownfield. 1986. "Gender, Lifestyle and Victimization : Beyond Routine Activity Theory." *Violence and Victims* 1 : 85-99.
- Johnson, R.E. 1979. *Juvenile Delinquency and Its Origin*. Cambridge Univ. Press.
- Kaplan, H.B. 1975. *Self-attitude and Deviant Behavior*. Pacific Palisades, Calif. : Goodyear.
- Kaplan, H.B. 1980. *Deviant Behavior in Defense of Self*. New York : Academic Press.
- Kaplan, H.B., S.S. Martin and R.J. Johnson. 1986. "Self-rejection and the Explanation of Devian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 : 384-411.
- Katz, J. 1988. *Seductions of Crime*. New York : Basic Books.
- Kennedy, L.W. and D.R. Forde. 1990. "Routine Activities and Crime : An Analysis of Victimization in Canada." *Criminology* 28 : 137-51.
- Kennedy, L.W. and S.W. Baron. 1993. "Routine Activities and A Subculture of Violence : A Study of Violence on the Street."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 88-112.
- Krahn, H., T.F. Hartnagel and J.W. Gartrell. 1986. "Income Inequality and Homicide Rates : A Cross-national Data and Criminological Theories." *Criminology* 24 : 269-95.
- Landau, S. and D. Pfefferman. 1988. "A Time-series Analysis of Violent Crime and Its Relation to Prolonged States of Warfare." *Criminology* 26 : 489-504.
- Loftin, C. and R. Hill. 1974. "Regional Subculture and Homicid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 : 714-24.
- Loftin, C. and R.N. Parker. 1985. "The Effect of Poverty on Urban Homicide Rates." *Criminology* 23 : 269-87.
- Luckenbill, D.F. 1977. "Criminal Homicide as a Situated Transaction." *Social Problems* 25 : 176-86.
- Luckenbill, D.F. and D.P. Doyle. 1989. "Structural Position and Violence : Developing a Cultural Explanation." *Criminology* 27 : 419-35.
- Matsueda, R.L. 1982. "Testing Control Theory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 A Causal Modeling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 489-504.
- Maxfield, M.G. 1987. "Household Composition, Routine Activity and Victimization : A Comparative Analysis." *Journal of*

- Quantitative Criminology* 3 : 301-20.
- McCarthy, J.D. and D.R. Hoge. 1984. "The Dynamics of Self-esteem and Delinqu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 : 396-410.
- Merton, R.K. 1938.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 Free Press.
- Messner, S.F. 1982. "Societal Development, Social Equality and Homicide." *Social Forces* 61 : 225-40.
- Messner, S.F. 1983. "Regional and Racial Effects on the Urban Homicide Rates : The Subculture of Violence Revisite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8 : 997-1007.
- Messner, S.F. and K. Tardiff. 1986. "Economic Inequality and Levels of Homicide : An Analysis of Urban Neighborhoods." *Criminology* 24 : 297-318.
- Messner, S.F. and J.R. Blau. 1987. "Routine Leisure Activities and Rates of Crime : A Macro-level Analysis." *Social Forces* 65 : 1035-52.
- Miethe, T.D., M.C. Stafford and J.S. Long. 1987. "Social Differentiation in Criminal Victimization : A Test of Routine Activities/Lifestyle The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 184-94.
- Miller, W. 1958. "Lower-class Culture as a Generating Milieu of Gang Delinquency." *Journal of Social Issues* 15 : 5-19.
- Parker, R.N. 1989. "Poverty, Subculture of Violence and Type of Homicide." *Social Forces* 67 : 983-1007.
- Parker, R.N. and M.D. Smith. 1979. "Deterrence, Poverty and Type of Homicid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5 : 614-24.
- Rosenberg, M., C. Schooler and C. Shoenbach. 1989. "Self-esteem and Adolescent Problems : Model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 1004-18.
- Sampson, R.J. 1987. "Urban Black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3 : 348-82.
- Sampson, R.J. and J.L. Lauritsen. 1990. "Deviant Lifestyle, Proximity to Crime and the Offender-Victim Link in Personal Violen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7 : 110-39.
- Savitz, L.D., K.S. Kumar and M.A. Zahn. 1991. "Quantifying Luckenbill." *Deviant Behavior* 12 : 19-29.
- Scheff, T.J. and S.M. Retzinger. 1991. *Emotions and Violence : Shame and Rage in Destructive Conflicts*. Lexington, MA : Lexington Books.
- Simon, L.M. 1995. "The Violent Offender's Perception of Victim Contribution and the Victim-Offender Relationship." *Journal of Crime and Justice* 18 : 47-62.
- Smith, D.A. and G.R. Jarjoura. 1988. "Social Structure and Criminal Victimizat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5 : 27-52.
- Sommers, I. and D.R. Baskin. 1993. "The Situational Context of Violent Female Of-

- fending."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 136-62.
- Sutherland, E.H. and D. Cressey. 1978. *Criminology*. Philadelphia : Lippincott.
- Wells, L.E. and J.H. Rankin. 1983. "Self-concept as a Mediating Factor in Delinquency." *Social Psychological Quarterly* 46 : 11-22.
- Williams, K.R. 1984. "Economic Sources of Homicide : Reestimating the Effects of Poverty and Ine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 : 283-89.
- Williams, K.R. and R.L. Flewelling. 1988. "The Social Production of Criminal Homicide : A Comparative Study of Disaggregated Rates in American Cit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 : 421-31.
- Wolfgang, M.E. and F. Ferracuti. 1967. *The Subculture of Violence*. London : Tavistock.